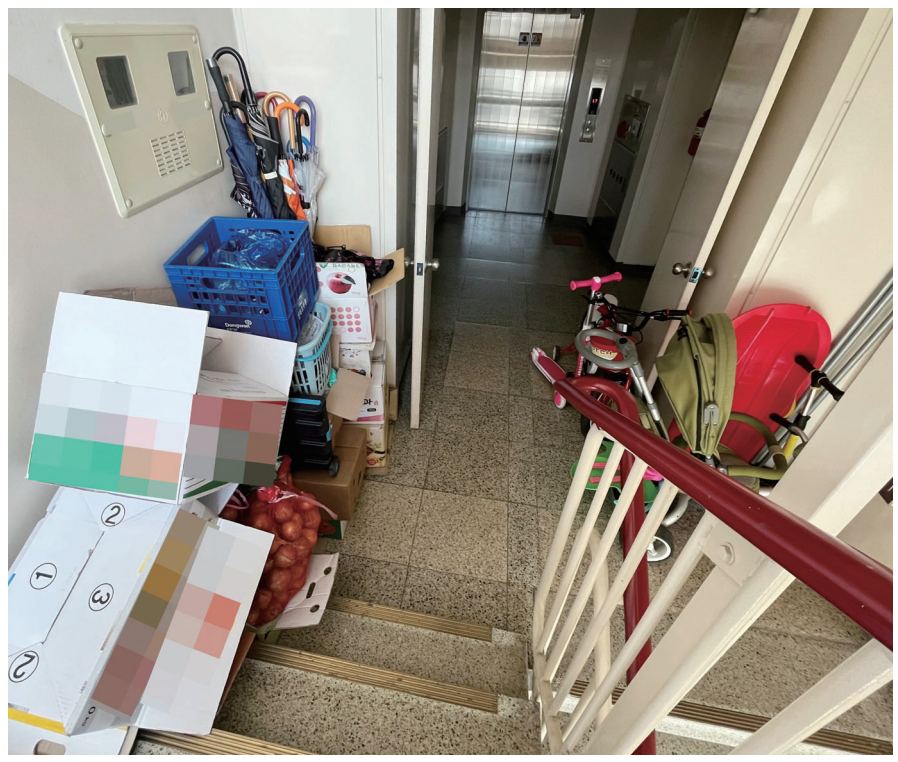
"불나면 어쩌려고"… 활짝 열린 방화문 화재 키운다

부천 호텔 화재 등 인명피해 늘어
106개층 중 1층 제외 모두 '개방'
환기 목적·물건 보관 장소로 활용
전문가 "피해 최소화 핵심 역할"

28일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맨션 옥상대피 장소로 올라가는 사다리 앞에 각종 적치물이 쌓여 있다.



28일 광주 서구 유촌동의 한 아파트 방화문이 열려있고 적치물이 쌓여있다.

최근 경기도 부천 호텔 화재 참사 당시 계단과 객실 등의 방화문이 모두 개방돼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져 인명피해를 키웠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광주 일부 아파트와 주택 일대에서도 방화문 등 소방안전시설이 제대로 배치·관리되지 않는 등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지난 22일 경기도 부천의 한 호텔 8층 객실에서 불이 나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중상 3명, 경상 9명 등 총 19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사망자 7명 중 5명의 사망 원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나타났다.

화재 당시 해당 호텔의 계단 방화문 중 일부는 닫히지 않은 상태였고, 불이 난 810호(7층) 객실 문 역시 활짝 열려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방된 방화문을 통해 객실 밖으로 연기가 급속도로 퍼지게 된 셈이다.

지난해 12월 서울 도봉구 한 아파트에서 32명의 사상자를 낸 화재도 방화문이 제대로 닫혀 있지 않은 것이 피해를 키운 이유로 지적된 바 있다.

방화문 등 소방안전시설은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광주 아파트와 주택 등지에서는 방화문과 소방안전시설 관리 등에 소홀한 모습이다.

28일 찾은 광주 서구 유촌동의 한 아파트 단지. 3개 동, 6개 라인의 106개 층을 돌아보니 현관인 1층을 제외한 100개 층 중 방화문이 닫혀 있는 곳은 단 1곳도 없었다.

일부 문은 주민들이 고임목 등으로 고정해 닫지 못하게 막아놓은 모습이었다. 방화문 근처에는 적치물을 쌓아놓지 말라는 관리사무소의 안내문이 붙어있었지만, 대다수의 층계에 자전거와 화분, 상자 등 각종 적치물이 쌓여 화재 발생 시 피난과 폐쇄가 어려워 보였다.

경비원 A씨는 "입주민들이 여름철 환기 등의 목적으로 방화문 등을 개방하고 겨울이 돼야 외풍을 막기 위해 방화문을 닫는다"며 "적치물에 대해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경비실 차원에서 방화문 개방을 막을 방도는 없다"고 하소연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아파트 방화문을 폐쇄·훼손·변경(개방)하거나 피상 계단 등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같은 날 찾은 북구 용봉동 일대 맨션 단지는 상황이 더욱 좋지 않았다.

이곳 맨션은 준공 40년이 넘어가는 등 노후화돼 층별로 방화문과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이 미비했고 일부 층에만 소화기가 비치돼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됐다.

주요 대피시설은 옥상으로 향하는 문을 열자 이곳 역시 각종 적치물이 쌓여있어 주민의 '창고'로 전락한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지에서는 소화기를 세대·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천장에 1개 이상 부착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방화문과 대피계단 등 소방시설이 피해 확산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은선 동신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은 면적·층·용도별로 연소 우려가 적은 내화구조의 방화구획이 돼 있어야 하고 출입 등을 위한 개구부는 항상 닫혀 있는 것이 원칙이다. 개방돼 있더라도 자동개폐시설 등이 설치돼 있어야 한다"며 "다만 환기 등 주민 편의의 목적과 개보수 과정에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단속 또한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화문·방화구획 등 소방시설은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건수는 최근 3년(2021~2023년)간 36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21건 △2022년 119건 △2023년 124건 등으로 사상자는 18명이 발생했다.

글·사진=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금호타이어 노조, 6년 만에 총파업 선언

경고파업 이어 내달 3일 전면파업
사측 "쟁의, 회사 성장 저해 우려"

금호타이어 노조가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다음 달 6년 만에 총파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8일 전국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노조)는 이날부터 29일까지 4시간 경고파업에 들어가며 다음 달 3일부터 전면 파업에 나서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15차 본교섭에서도 노사 협의를 이루지 못하고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지난 23일 2차 쟁의대책위를 소집해 결정한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다음 달 무기한 총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노사는 앞서 지난 6월 임단협 본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이달 27일까지 15차례 교섭을 이어왔지만 결국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달 29일 제12차 본교섭 결과에 결렬을 선언했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광주·곡성·평택공장 노조원 3545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해 3219명(90.80%)이 참여한 가운데 3104명(96.43%)으로부터 찬성을 얻었다.

노조는 "사측은 지난 22일 14차 본교섭에서 달랑 A4용지 한 장에 '기본급 2%, 일시금 400만원, 기타 요구안 논의가능'이란 세 줄짜리 수정 제시안을 제출하는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며 "원만한 합의를 위해 예고된 경고파업 하루 전인 27일 15차 본교섭 오전 1시까지 교섭을 진행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사측은 전향적인 입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2024년 단체교섭을 끝내 파국으로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합원의 자존심을 짓밟고 분노를 유발하며, 시간만 낭비하는 기만적인 사측과 더 이상 대화를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교섭을 타결 짓지 못한다면, 다음 달 3일부터 전면적인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측은 이에 유감을 표하며 합의점 도출을 위해 조합원들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상당 부분 의견 일치를 이루고 진전이 있는 상황에서 몇 가지 쟁점을 남겨두고 조합이 예정대로 4시간 파업을 진행하는 건 유감이다"며 "노사 간 문제로 정상적 공장 운영이 중단된다면 회사의 성장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기에 쟁의행위로 인해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협상에 임해달라"면서 "사측 또한 조속히 합의점에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찬 기자